불교는… 불교신문
불자의 의무이자 자부심입니다
구독신청 (02)730-4488

佛教新聞

bulgyo.com

불기 2557년 7월 31일 (2013년 / 단기 4346년 불력 6월24일) 대표전화 (02)730-4488 제2933호 수

대우투어 daeseungtour
신일상품 불자들의 여행사
여법한 순례
품격있는 여행
☎ 1577-0206 www.대우투어.com
1960년 1월 1일 창간 주간제 발행

"비방·사회법 제소 단호 배격" 본사주지스님들 정법수호 다짐

결의문 채택…종단화합 선거 '서원'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단 일부에서 근거 없는 폭로로 불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행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고창사 주지 스님들도 건전 비방 및 폭로 행위에 대해 강하게 맞서겠다고 나섰다. 전국교구본사주지스님협의회(의장 성문스님)는 지난 26일 제1교구본사불국사에서 회의를 열어 결의문을 채택하고, 종법 질서를 확립하고 새 종 행위를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스님들은 "중앙종회에서 금권 선거와 비방 폭로 행위, 매관매직과 같은 구태한 선거 문화를 되돌아볼수록 구정있고 적공하겠다는 결의문까지 채택한 바 있지만, 아직 종단 일각에서는 잘못된 구습에 젖어 종도들을 불신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폭로와 비방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뼈근 아픈 지적도 있는 무분별한 폭로와 인신비방에 대해 경계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종단의 사법재도를 거치지 않고, 사정없으로 종단문제를 확대시키거나, 언론을 목격적으로 활용해 자신만의 일방적인 주장을 세간에 무차별 유포시는 행태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스님들은 "법명제인 과정을 통한 문제제기와 검증 절차는 철저히 보호해야 하지만 반드시 무분별한 비방과 폭로 행위는 분명과 불신의 그림자 속에 승단의 화합을 해치고 종도들을 분열시키는 사자충에 지지 않는다"며 "실제 없는 과거에 매몰되어 공동체의 동신과 질서를 해치는 각종 비방 및 폭로 행위에 대해 구종의 입법으로 단호히 맞설 것이며 그 어떤 타협과 관용도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무분별한 폭로로 부파나눔에 문제적인 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에 대로 및 비방행위를 확대시키는 행위는 1천만 불교도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사정의 공기로서 실제 없는 한번 폭로 행위를 준엄히 경책하고 올바른 보도 문화 확립에 앞장서 줄 것"을 언론과 방송에 요청했다.

종단과 불자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번 경주에도 연속되지 않는 종도이라는 일들이 성숙한 자세를 바른 적공과 정법 구현에 앞장 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5개 본사를 책임지고 있는 주지스님들은 제3대 총무원장 선거에 대해서도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제 치러내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금권 선거와 매관매직 등 배들어진 과거의 선거 관행을 과감히 척결해고, 반성과 폭도가 아닌 종책과 종단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화합과 탁마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원했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결의에는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성문스님(동화사 주지)을 비롯해 용주사 주지 정호스님, 법주사 주지 현조스님, 마곡사 주지 원불스님, 수덕사 주지 지운스님 등 고창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불국사=박종호 대구·경북지사장
이현경 기자 eastsb@bulgyo.com

지난 25일 정의대회를 방문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불교지도자들이 "비단에 대통령과 함께 찬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총무원장 스님은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범중소 화합과 넓게 보게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없어지고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국보 제1020호 홍주시 방종 모 형도 선물하기도 했다.

사진제공=청와대

"평화기반 구축은 곧 국민행복"

불교지도자 27명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불교 지도자들이 지난 25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을 갖고 국민행복 등을 주제로 환담했다. 이번 불교지도자 초청 청와대 오찬은 지난 3월 한국불교지도자협의회 회장단 초청 오찬과 지난 10일 개신교 지도자 초청 오찬에 이어 세 번째 대통령 취임 후 3번째 가진 종교지도자 초청 행사다. 특히 이번 오찬은 지난 4월 한국불교문화원의 대표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와 국민행복기원대법회에 박 대통령을 초청해 준데 대한 답례의 뜻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정치가 지태평이라 하는데 부처님 마음을 회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행복의 길에 앞장설 수 있길 바란다"면서 "불교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길에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불교지도자들을 반겼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해 불교는 국민과 정부와 함께 할 것이며,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완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현 정부에 건승으로 이 해 경제부흥과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기반 구축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길 모두의 정성으로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박 대통령과 국정철학이 범중소화합과 넓게 보게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없어지고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국보 제1020호 홍주시 방종 모 형도 선물하기도 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날 오찬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원정한사 등 27명의 불자지도자가 참석했다. 정오대에서는 하태열 대통령실 비서실장, 유민봉 청와대홍보수석,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등이 배석했다.

박인혜 기자 pakinhe@bulgyo.com

내년 비구니 군승 파송 '확정'

육군 1명·항군이래 최초

올해 군불교계 최대 이슈인 내년도 비구니 군승 파송 계획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군종병과 여성인력 총 14명(기독교 8명, 불교 6명)을 배정해야 운영하게 되며, 우선적으로 내년(2014년 년)에는 육군에 불교 1명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25일 공식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상 최초로 비구니 스님이 군종장교로 활약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군종병과의 여성인력 개발은 각 군의 여성인력 개발 추세와 종교별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하는 것"이라며 "향후 장병들이 올바른 가치관 확립, 정신전력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구니 스님의 군승 파송은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성직자 군 진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군교교육에 여성 특유의 감성적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차지에서 종단 차원의 관심이 제기됐다. 현재 군종교구는 자격을 충족하는 비구니 스님 1명을 선발한 상태이며, 이 스님은 7월30일 부산 종합사격대 시작되는 예비군승 소집교육부터 참가해 본격적인 예비군승 수업을 받게 된다. 교육을 원만히 마치면 내년 6월 군종장교로 정식 임관할 수 있다. 군종교구 관계자는 "초기는 1명을 더 선발해 모든 계획인 것 2명의 비구니 군승이 내년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조율 해왔다"고 밝혔다.

자격을 충족하는 비구니 스님 1명을 선발한 상태이며, 이 스님은 7월30일 부산 종합사격대 시작되는 예비군승 소집교육부터 참가해 본격적인 예비군승 수업을 받게 된다. 교육을 원만히 마치면 내년 6월 군종장교로 정식 임관할 수 있다. 군종교구 관계자는 "초기는 1명을 더 선발해 모든 계획인 것 2명의 비구니 군승이 내년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조율 해왔다"고 밝혔다.

정광섭 기자 kari@bulgyo.com

제3대 군종교구장 정우스님 취임 17면

외국인이 외국인 상대 연등회 홍보 '대성공'

연등회보존위원회 만족도 조사 결과 96% '만족' 응답

올해 처음 실시한 연등회 국제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내외국인 학생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외국인 참가자는 96%가 만족한다고 답해 연등회 국제자원봉사활동등의 더욱 확대해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가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참석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연등회보존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 기분좋은Q(X)주는 지난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13 연등회 국제자원봉사 활동결과 보고서' 발간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참가자들은 "연등회 현장 참여활동과 템플스테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템플스테이는 참가자들 제외한 전원이 만족한다고 답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봉사단원들이 진행한 연등회 모니터링에서도 "연등회가 인종, 종교,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외국어로 소통 가능한 인적자원을 구축해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고 국제적인 평사문 발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국제자원봉사단을 구성했다"면서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한 결과 103명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 내국인 30명, 외국인 33명 등 총 63명이 라반의 사회교육과정과 자원봉사를 모두 이수했다.

참가자들은 연등회 발전을 위한 제언도 내 놓았다. 자원봉사자들은 "최근 몇 년간 축제 공간의 협착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현반적인 정보 제공 및 안내의 원시인에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자원봉사활과에 대해 연등회보존위원회는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뿐 아니라 젊은 층의 내국인 대학생들에게 연등회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또한 참가자들을 통해 한국불교와 연등회의 홍보네트워크로서 개인적 SNS를 통한 홍보활동 자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상수 기자 sooam@bulgyo.com

2013년 승려연수교육
보광스님과 함께하는 일본고찰순례
"꽃 그늘 아래선 낯선 남이 사람 아무도 없네 (花の陰あかの他人はなかりけり)" 小林一茶

조계종 교육원에서는 2013년 승려연수교육으로 9월 26일(목) ~ 30일(월)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일본고찰순례를 진행합니다. 이번 순례는 동국대 교수이며 조계종 장학위원회 위원장인 보광스님을 지도법사로 하여, 고야산, 나라, 교토, 오사카 지역의 고찰을 순례해하는 코스입니다.

일본인들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꼭 한번은 가봐야 한다고 하는 고야산의 곤고부지, 오무노인 정배법과 더불어 일본의 대표적 고찰들을 순례하며 한국불교가 일본불교에 끼친 영향과 현대 일본불교가 어떻게 전승·변화되어 왔는지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 정: 불기2557년 9월 26일(목)~ 30일(월)
(음력 8.22~26) (4박 5일)
■동 참 금: 130만원
■동참마감: 불기2557년 9월 6일(금)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국
Tel (02)2011-1810, 1807 Fax (02)732-4926
■주관여행사: 세븐여행사 보타투어
Tel (02)771-7758, 7100 Fax (02)771-7101

법륜사 금당벽화.